

할머니들의 삶이 평안해지길...

결사추진본부 연대문 발표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본부장 도법)가 연대문을 발표하고 할머니들의 평안한 삶을 발원했다.

결사추진본부는 “분노와 눈물의 한 맺힌 20년, 비폭력 항의시위로 세계 최장을 기록한 세월 앞에 삼배를 올립니다. 70년 비극의 세월과 참혹한 고통 앞에 삼배를 올립니다”라고 밝혔다.

결사추진본부는 할머니들의 아픔이 개인적 슬픔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양심의 문제라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누어

할 사회적 책무임을 강조했다. 또한 1000번째 수요 시위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진실규명에 박차를 가하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일본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결사추진본부는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진실한 반성 위에 공개사과와 합당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34명 가운데 이제 63명으로 줄어든 위안부 여성들의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깊은 존경의 뜻을 보내며 그분들의 삶이 평안해 질 수 있도록 발원 한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일본은 배상하라 알겠느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가 1992년 1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열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요 시위가 12월 14일 1000회를 맞았다. 할머니들은 줄곧 일본 정부를 향해 공식적 사과와 배상,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234명의 할머니 중 63명만이 생존한 지금까지도 할머니들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불교계와 사회 각계의 모금으로 마련된 정신대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대표 월주)에도 9명의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 대사는 들어라. 우리 할머니들이 모두 죽기전에 반드시 사죄하고 배상하라. 들리는가 대사!” 라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사진=박재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㉔

천년 동안 참 많기도 아팠구나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南原 實相寺 百丈庵 三層石塔) 국보 제10호



실상사는 통일신라 흥덕왕 3년(828)에 증각 대사가 선종9산의 하나인 실상산문을 열면서 창건했다.

실상사 백장암 남쪽 밑으로 '백장암 석동(보물 40호)'과 함께 '백장암 삼층석탑(국보 제10호)'이 있다. 이 백장암 삼층석탑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로 지정됐다.

낮은 기단(基壇) 위에 3층의 탑신(塔身)을 올린 모습으로, 각 부의 구조와 조각에서 특이한 양식과 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 탑은 탑신의 너비가 거의 일정하며, 2층과 3층은 높이도 비슷하다. 탑 전체에 조각이 가득하여 기단은 물론 탑신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각이 나타난다. 기단과 탑신과인에는 난간모양을 새겨 넣었고, 탑신의 1층에는 보살상(菩薩像)과 신장상(神將像)을, 2층에는 음악을 연주하는 천인상(天人像)을, 3층에는 천인좌상(天人坐像)을 새겼다. 지붕돌 밑면에는 연꽃무늬를 새겼는데

3층만은 삼존상(三尊像)이 새겨져 있다.

백장암 삼층석탑은 1962년 국보로 지정된 후, 참 많기도 아팠다. 1972년 5월에는 문화재관리국이 해체복원공사를 하다가 기술부족을 이유로 7군데가 깨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고, 간신히 버티고 있던 석탑은 결국 1980년 2월 도굴범의 소행으로 완전히 파손되어 원형을 잃고 만다.

천년의 세월 동안 스즈카기 비바람과 여러 차례의 전쟁, 일제강점기, 도굴꾼의 만행 등 온갖 수난을 겪어오면서도 꿋꿋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tasna@hyunbul.com

의궤 다음은 왕실의 갑옷 · 투구

문화재환수위 향후 계획 밝혀

조선왕실의궤 환수를 위해 노력해 온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앞으로 고종의 투구와 갑옷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12월 13일 남산 한국의집에서 좌담회를 열고 조선왕실의궤 반환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 좌담회에는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과 이원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총재 이상근 조선왕실의궤환수위 실행위원장 문상모 서울특별시의회 해외문화재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카사이 아키라 일본 중의원이 참석했다.

해문 스님은 “도교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된 채 공개되지 않고 있는 고종이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투구와 갑옷 환수가 다음 목표다”라고 밝혔다. 스님이 말한 투구와 갑옷은 오구라 컬렉션 중 하나인 조선 왕실의 용봉문 투구와 의식 때 의례용으로 착용하는 두정갑옷이다. 해문 스님은 2010년 10월 경 도쿄에서 <오구라 컬렉션 목록>이라는 제목의 수필집 한 권을 입수했다. 이 책에는 오구라가 사망 직전 자신이 수집한 유물의 수집 경로가 기록돼 있다.

해의로 반출된 문화재 중 ‘용봉문 투구’에 관심을 갖던 스님은 <오구



12월 16일 월정사 법륜전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주지 정념 스님이 의궤를 전달받아 불단에 봉헌하고 있다.

라 컬렉션 목록>에서 용봉문 투구가 조선왕실에서 사용된 것이라는 확신했다. 오구라는 이 책에서 “용봉문 투구는 형태나 재질, 장식적인 면에서 볼 때 왕실의 초고위층, 다시 말해 왕이나 왕세자가 착용한 물건임을 짐작케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왕실에서 전래되던 갑옷도 우리에게 중요한 문화재다. 국립문화재연구소도 이 갑옷이 의례용으로 사용됐으며 형태, 재질, 장식 등으로 보아 최고위층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과 개인 소장품이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공식적 환수 요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문 스님은 이런 상황을

조선왕실의 후계자들의 상속권 주장과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조선왕실의궤환수 과정에서 협력했던 일본 측 인사들도 환수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카사이 아키라 일본 중의원 의원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용봉문 투구와 갑옷의 환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왕실의궤 환수 고유제 및 환영행사가 16일 강원도 오대산 사고와 월정사에서 열렸다. 오대산 사고는 의궤를 약탈 당하기 전에 본래 보관됐던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찬 문화재청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태고종 2012년 예산 67억원 확정

총회회장 도산 스님 선출

태고종의 2012년도 예산이 67억 2200여 만원으로 확정됐다. 상반기 중앙총회 의장에는 도산 스님(제주 수정사·사진)이 선출됐다.

태고종 중앙총회는 12월 1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07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제13대 중앙총회 개원식을 겸해 열린 회의에서는 예산안 심의 등과 총회회장 선출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

총회회장 선거에는 영우 스님(前 중앙총회회장), 해공 스님(前 총무원 부위원장), 도산 스님이 출마해 2차 투표 끝에 도산 스님이 30표를



이 선출됐다.

총무원 부위원장에는 청봉 스님이 선출됐고, 법규위원장 화경 스님에 대한 동의안이 가결됐다.

‘전승관 국고보조금 재정산의 기체승인 요청안’은 인천 용궁사 토지를 담보로 국고보조금 10억을 반환기로 결정했다. 대출금 상환 방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조동섭 기자

이천오층석탑 한일 우호 계기되길

환수위 19~21일 방일 착수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상임위원장 조명호, 이하 환수위)는 12월 19~21일 일본 도쿄 오쿠라슈코 칸에 협상단을 파견해 이천오층석탑의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파견단은 보문 스님(영월암), 성원 스님(영월사) 등 불교연합회 지도자와 환수위 대표단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훼손된 이천오층석탑의 보

수상태를 확인하고 한·일 종교대표단 및 청소년 대표단의 환수지를 전달했다.

종교대표단은 성명서를 통해 “이국타향 일본에 강제 이송돼 대지진으로 인해 커다란 손해를 입은 이천오층석탑이 하루빨리 본국인 한국으로 무사히 귀환되기를 염원한다”며 “탑의 반환을 통해 한·일 양국이 상생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승화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큰..

대한불교원효종재교부공고

귀의삼보하옵고, 종도님들의 법체 청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제반일들이 부처님의 자운으로 원만 회향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종단은 각 신문사를 통하여 수차례 재교부공고를 하여 현재까지 등록하신 종단소속원을 잠정적으로 집계하였습니다, 하오나 아직 재교부를 받지 않은 종도들이 다수 있어 이에 중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재교부 공고를 하오니 기간내에 재교부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중무원을 경유해 접수된 서류는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적회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범 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위원 임명장, 승려증 또는 신분증
- 접수기간 : 1차 접수기간 : 2555(2011)년 12월 30일 금요일 (2011년 12월 30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효)
2차 접수기간 : 2556(2012)년 2월 29일 수요일 (2012년 2월 29일 우체국 소인(접수)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각 교구중무원
- 문 의 처 : 02)735-0501, 0502

총 무 원 장 향 운 합 장
심 의 위 원 장 운 오 합 장

심 의 위 원 일 룬, 마 명, 상 목, 자 성, 범 일, 성 암 합 장